
공무국외여행 배낭연수 결과 보고

2019. 6.

꽃보다 언니

목 차

I. 연수 개요	1
1. 연수 목적	1
2. 연수 일정	1
3. 연수자 명단	1
4. 연수 세부 일정	2
5. 연수 사진	3
II. 연수 국가 현황	4
III. 연수 내용	5
1. 체코	5
2. 오스트리아	7
3. 헝가리	10
IV. 연수결과 및 시사점	13

I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인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노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선진 사례를 통한 우리시 접목방안 모색하고자 함.
-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고령친화적인 환경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함.

2. 연수 일정

- 기 간 : 2019. 6. 2.(일) ~ 6. 9.(일) 8일간
- 인 원 : 4명
- 연수 국가 : 3개국(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3. 연수자 명단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역할
탕정면	복지7급	윤정현	사전조사 및 일정 총괄
총무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사서7급	홍선아	사전조사 및 사진 촬영
자원순환과	행정8급	심호정	회계 및 보고서 작성
도고면	행정8급	이수련	사진 촬영 및 보고서 작성

4. 연수 세부 일정

월 일 (요일)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6월2일 (일요일)	인천(한국)	체코 항공	12:50	인천공항(출국)	
	프라하(체코)		17:00	프라하공항(도착)	
6월3일 (월요일)	부다페스트 (헝가리)	버스	—	▶ 마차시 사원, 부다 왕궁 / 성 이슈트반 사원, 영웅광장	※ 노인의 여가활동 향유를 위한 공공시설, 야외공간 사례조사
6월4일 (화요일)	비엔나 (오스트리아)	버스	—	▶ 쾨부른 궁전, 게른트너 거리, 성 슈테판 대성당, 국회의사당	
6월5일 (수요일)	할슈타트 잘츠카머гут (오스트리아)	버스	—	▶ 할슈타트 ▶ 모차르트하우스 장크트길겐	
6월6일 (목요일)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체스키크롬로프 (체코)	버스	—	▶ 미라벨 정원, 호엔잘츠부르크 성채 ▶ 체스키크롬로프 성, 시청사, 스보르노스티 광장	
6월7일 (금요일)	프라하(체코)	버스	—	▶ 프라하성, 흐트라니 광장, 까를교, 구시가광장, 천문시계탑, 구시청사, 틴성당, 바츨라프광장, 비셰흐라드, 국립명예묘지, 성 마르틴 교회	
6월8일 (토요일)	프라하(체코)	체코 항공	17:30	프라하공항(출발)	
6월9일 (일요일)	인천(한국)		10:25	인천공항(입국)	



5. 연수 사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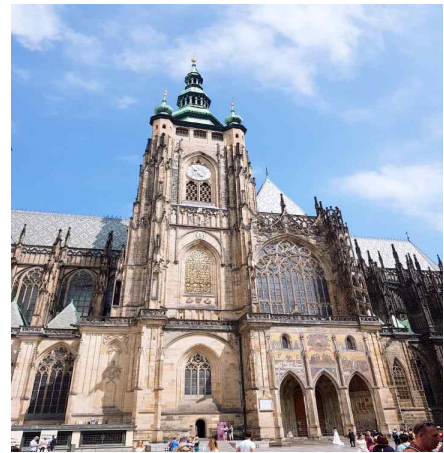
연수 국가 현황

구 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수 도	프라하	빈(비엔나)	부다페스트
위 치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		
언 어	체코어	독일어	헝가리어
화폐단위	코루나 (Koruna)	유로 (Euro)	포린트 (Forint)
인 구 (‘19)	1,063,589명	8,766,201명	9,655,361명
면 적 (‘15)	7,887,000 ha (한반도의 1/3)	8,387,900 ha (남한보다 약간 작음)	9,303,000 ha (남한면적과 비슷함)
행정구역	수도 + 13개 주	9개 주	수도 + 19개 주
주요도시	브르노 오스트라바	인스브루크 잘츠부르크 클라젠푸르트	데브레첸
1인당 GDP (‘17)	\$22,468	\$46,436	\$13,495
노인복지지표 순위	25위	14위	46위
노인 빈곤율 (‘15)	3.7%	약 9%	약 8%
65세 이상 인구비율	18.1%	18.8%	17.8%
	⇒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1. 체코

가. 프라하

1) 프라하성



프라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성에 속한다. 구 시가지의 블타바강 서쪽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프라하성은 9세기 말에 짓기 시작하여 카를14세 때인 14세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영빈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라하 성 내부에는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 비투스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성 이르지 교회와 로젠베르크 궁전, 황금 소로 등을 볼 수 있다.

2) 카를교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체코의 구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연결해주는 다리이다. 너비 10m, 길이 520m에 이르며 다리 양옆으로는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성인상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성 루이트가르트, 성 비투스 등 성경에 나오거나 성인으로서 칭송받는 사람들을 새겨놓은 것으로 조각상을 만지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무엇보다 프라하성의 전경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3) 프라하 구 시청사, 구 시가지 광장



프라하의 구 시가지 광장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고딕양식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시대별 건축 양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구 시가지 광장과 얀 후스 동상, 틴 성모 교회, 골드 킨스키 궁전, 화약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프라하의 구 시가지 광장에서 여러 건물 중에서도 천문시계가 있는 구 시청사는 프라하의 필수 관광지로 손꼽힌다. 15세기에 만들어져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매 시각 정시가 되면 종이 울리면서 인형들이 움직이고 위쪽 창이 열리면서 12사도가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닭이 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정시가 가까워지면 구 시청사 앞에 모인다. 체코 고딕 시대의 과학과 기술이 들어간 결정판이라고도 할 만큼 높이 평가받으며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체스키크롬로프



체코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체스키크롬로프는 보헤미안의 흔적이 서린 유럽 중세 도시이며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300여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문화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 안에는 체코에서 프라하성 다음으로 큰 체스키크롬로프성이 있고 이 성은 르네상스 양식의 방, 바로크 양식의 홀 등 귀족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 오스트리아

가. 비엔나

유럽의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로서, 한때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로 더 의미가 있다. 1440년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정치와 예술,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1) 쾨부른 궁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중세 최대의 왕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름 휴양지로 만들어졌으며 자그마치 1천400개가 넘는 방을 갖추고 있다. 음악신동 모차르트가 6살 때 궁전에 초대받아 피아노를 연주한 곳이 바로 이 쾨부른 궁전이다. 쾨부른 궁전은 함께 딸린 넓은 정원으로도 유명한데 바로크 양식의 극치라고 일컬어지는 이 정원에는 로마 유적과 열대식물 온실, 여러 컨셉의 작은 정자와 분수, 조각상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많은 건축물이 있다. 1752년에 세계 최초의 동물원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2) 성 슈테판 대성당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인 성 슈테판 대성당은 12세기 중엽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교회가 건설된 것이 시초이며, 14세기 루돌프 4세가 고딕 양식의 대교회로 다시 짓게 했다. 총 8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슈테판 대성당은 공사 기간만 65년이 소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재로 내부가 소실되었지만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194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며,

23만 장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 장식이 특히 유명하다. 지하에는 당시 장례 관습에 따라 합스부르크가 역대 황제와 후손들의 내장을 안치한 납골당(카타콤베)이 있다.

나. 할슈타트



오스트리아 잘츠카머гут에 있는 한적한 호수마을로 예전에는 소금광산이었다. 할슈타트의 'hal'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을 지녔다. 세계최초의 소금광산도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소금광산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마을 뒤로 돌아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흐슈타인 산에 오르면 광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마을 한가운데 중앙 광장이 있고 광장을 둘러싸고 꽃으로 창을 단장한 세모 지붕 집들과 레스토랑들이 늘어서 있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예전 소금광산에서 나왔던 암염조각을 팔기도 한다.

다. 잘츠부르크

1) 미라벨 정원



잘츠부르크 신시가지의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으로, 미라벨 궁전

은 1606년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 살로메를 위해 지었다.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조성하였으며,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과 많은 꽃들로 잘 장식되어 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 송'을 불렀던 곳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2) 호엔잘츠부르크 성채



잘츠부르크의 상징인 곳으로 구시가 남쪽, 뮌히스베르크 언덕의 120m 지점에 위치한다. 구시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구시가 어디에서든 보이는 요새이다. 1077년 건축한 철옹성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에 주교 서임권 투쟁을 벌이던 시기에 잘츠부르크 대주교 게프하르트가 남부 독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세운 곳이다.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견고하게 지어진 덕분에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아 지금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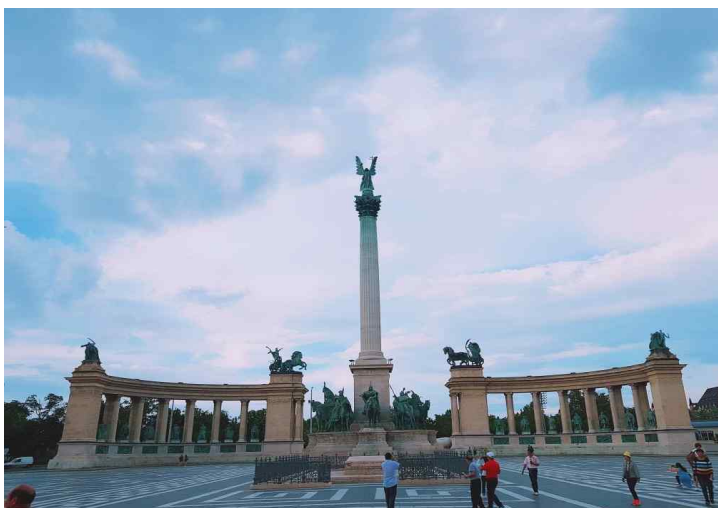
가. 부다페스트

1) 어부의 요새



오래된 '성 언덕'의 동쪽 면을 따라 180m 길이로 뻗어 있는 전망 좋은 성채로, 도나우 강 건너 국회 의사당 건물과 부다페스트의 19세기 페스트 지역이 내다보이는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어부의 요새'라는 이상한 이름은(이 성채는 물가에 있지도 않고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요새도 아니다) 현대적인 테라스가 건축되어 있는 오래된 성벽에서 유래했다. 이 성벽은 중세의 생선 시장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뻗어 있었으며, 따라서 어부 길드 조직원들이 이 성을 방어했던 것이다.

2) 영웅광장



영웅 광장은 벨바로시에서 부다페스트의 문화 거리인 안드라시 거리를 지나 그 끝에 있는 것으로, 헝가리 1천 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징물이다. 영웅 광장 가장 자리엔 열주(列柱)로 이뤄진 구조물이 반원형으로 만들어져

왼쪽에 7명, 오른쪽에 7명 등 모두 14명의 청동 입상이 서 있다. 열주가 시작되는 왼쪽 열주의 위에는 노동과 재산, 전쟁의 상징물이, 오른쪽 열주가 끝나

는 윗부분엔 평화,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상이 있다. 각 동상의 하단에는 헝가리 역사에서 중요한 명장면을 담은 청동 부조물이 한 점씩 걸려 있어 헝가리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 유럽의 활기찬 노후 정책

유럽에서 1990년대 초부터 국가정책으로 노화와 노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 WHO에 따르면 활기찬 노후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사회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EU는 2012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유대를 위한 유럽의 해(EY2012)’를 선언한 이래, 각기각색의 활기찬 노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핵심은 고용, 지역사회참여 및 건강노화로 설정된다.

-> 아산시는 2017년 기준 총인구 327,657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 36,581명으로 그 비율이 약 11.2%에 달하여, ‘고령화사회’에 해당한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 하고 있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동유럽 국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사례들을 통하여 아산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오스트리아 노인의 50% 이상이 하루 중 20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나라에서는 노인주거시설 대신에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사회와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협동조합’과 ‘세대통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구성하여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위해 청소,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협동조합’과 한 지붕 아래 젊은 사람과 중년, 노인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거주하지만 공동의 공간을 통해 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세대통합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 세대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외로움, 사회성

결여 등을 느끼게 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일깨워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나. 노인들에게 사회 교육

체코 프라하의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5-20년간의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부담없는 비용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U3A platform은 프라하에 있는 대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 정보를 제공하며, University of Free Time에서는 세대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전국적으로 도서관, 문화단체, 요양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소규모 계몽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산시에서도 교육의 연령층을 확대하여 보다 넓은 연령대의 시민들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일자리 교육 · 정보화 교육 · 건강상식 교육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